



# 용기를 내어 사랑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7절)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범회



바오로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에페소 공동체의 책임자이며, 자신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젊은 제자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써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모테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하느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힘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기억시켜 주어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라고 하세요.



스위스의 두 4젠의 경험담이에요.

미카엘과 요셉은 알프스 산맥 근처의 어느 숲 속에서 살아요. 하루는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셔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나빴어요.



미카엘이 부모님께 다가가서 질문해요.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죠?” 부모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는, 조금 전에 다투었지만 별일 아닌 듯 보이려고 애쓰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나, 이 4젠 형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의 표시로 서로 안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평화가 되돌아왔어요.